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2권 20호(나해) 2012·4·8

[묵상]

예수님의 빈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바람처럼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사도<외젠느 뷔르낭,19c,파리 오르세 미술관>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인에게
무덤 속에 앉아 있던 웬 젊은이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되살아나셨고
너희는 갈릴래아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뛰어가던 그들의 그 벅찬 설렘과 감격,
기쁨에 터질 것 같은 그들의 심장 고동소리에
처참한 죽음의 모든 표징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기에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은
그들만이 누리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제야 저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은
오로지 인간을 사랑한 결과였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기쁨을 안고 저희의 가정으로 향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러
그 사랑을 안고 이웃으로 달려갑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저녁미 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애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애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짝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애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모임의 날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간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부활 대축일	학생미사(오전 9시30분) (연)이호순 프란체스카, 문순금, 엄익찬 안토니오, 이상일 요셉,신태동 요아킴, 양갑순 마리아 (생)이경용 아고보 & 이윤조 글라라, 한상환 안토니오, 이봉덕 베네딕도 & 이태숙 카타리나, 보혜민 안젤리, 최상민 사비노 & 최양숙 안젤라 가정
	낮미사(오전 11시) 백삼위 전체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10,34ㄱ.37ㄴ-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John) 20,1-9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9
봉헌	261
성체	306
파견	17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교회, 성경 해석학의 본래적 장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기준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관계가 주석가들이 복종해야 할 외재적인 기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 자체로부터, 그리고 성경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온 과정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입니다.

실상, "신앙 전통은 성경 저자들의 문학 활동을 위한 삶의 배경을 형성하였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신앙 전통들을 이 배경 안에 끌어들이면서 공동체의 전례 생활과 외적인 삶, 자신들의 지성 세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역사의 부침도 중요한 몫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 역시 주석가들에게 자기네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지니는 삶과 신앙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쓰인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하며, 주석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는 사실 그대로 인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다가가야 합니다.(1테살 2,13 참조). 이것은 성경 자체 안에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하느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이며, 교회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데에서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30). 예로니모 성인은, 우리는 결코 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닫혀 있는 문들에 마주치게 되고 또 쉽게 오류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에 의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느님 백성과의 이러한 친교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마르 16.6) 복음사가들은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티베리아 호수 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시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끝내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1.15) 며칠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배반했던 것을 떠올리듯 수님께서는 세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친구 사이의 사랑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폭넓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는 데 그들은 기쁨과 두려움에 떨며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습니다. 루가복음사가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온전히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니신 기쁨을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적인 감정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부활하신 후에는 화를 내지 않은 실 것 같은데 예상을 뒤엎습니다. 엠마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루카 24.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며"(마르 16.14)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도전은 이기심으로 생기는 노예 상태로부터 믿음을 통해 순명하는 자유의 상태로 옮아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빠스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고뇌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준 사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은 승화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고통은 초월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빠스카의 의미입니다. 곧,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정에서 고통과 죽음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을 아주 탁월하게 변형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생애와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는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우리 존재는 유한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원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빠인 나자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당신도 그렇습니다.

매매 추운 날,
뜨거운 국밥 먹을 생각에 몸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이른 봄, 딸기를 보는 순간
입안에 단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세상에는 보는 것만으로 입안에 단물이 고이고
생각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부활 대축일) 전례봉사자

이번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주일학교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이상철크리스토퍼 이희경크리스티나		제1독서자 이영식크리스토퍼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이계용 안드레아 이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전하현 마리아
서 간	모은기 다두		제물봉헌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더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h.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 성시간/성모신심미사는 성주간 전례관계로 없습니다.

◈ 성모회 부활절 음식 나누기

- 부활성야 : 미사후 전신자들과 생강차와 떡을 나눕니다.
- 부활대축일 : 낮미사후 전신자들에게 부활축하점심으로 사골우거지국을 무료로 대접합니다.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성모회장 ☎(310)738-1788

◈ 부활절 은총시장행사(운동회와 카니발)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운동회와 카니발 축제)에 학부모님들은 물론 일반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 일시 : 부활대축일(8일) 학생미사후 친교장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어르신들께 부활선물 전달

본당 사목회 사회복지분과위에서 예수님 부활을 더욱 기쁘고 뜻있게 보내기 위해 본당의 어르신들과 이웃 노인아파트(마리코파와 카슨)에 부활계란, 떡, 과일, 샌드위치 등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요셉회와 안나회에 전달했습니다.
준비에 도움을 준 레지오 단원들과 김민수 바오로 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달일시 : 부활대축일 미사후

◈ 부활절 은총시장행사에 도네이션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운동회와 카니발 축제)에 필요한 상품구입을 위해 도네이션 해주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백삼위 골프회 4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4월14일(토) 오전 9시
- 장소 : Recreation Park 골프코스(롱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본당 웹사이트 www.103skcc.org 새롭게 단장

부활절을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의 기존 사이트가 새롭게 단장하고 교우들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모든 교우들이 손쉽게 우리 백삼위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함께 꾸며 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문의 :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담당자 :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 성당관련 사진을 CD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성당내 기념사진 및 신심활동 사진은 백삼위 웹사이트(www.103skcc.org)와 Flicker(http://www.flicker.com/photos/52248131@N06)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원하시는 분은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사진 신청함에 이름(+ 행사)을 넣어주십시오.

- 신청기간 : 4월8일~5월5일
- 문의 : 홍보분과 이민상 요한 ☎(213)709-4400
  분과장 현석주 아오스딩 ☎(310)594-9472

◈ 부활축제 본당 엠마우스

- 일정 : 4월9일(월)~12일(목)까지. 사무실 휴무.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8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사골우거지국 $0)
  * 주일학교(10학년 치킨 케사디아)
- 4월15일(주일) : PV 3/4반(배추된장국 $3)
  * 주일학교(8학년 김치콩나물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선제 김영경 김영길 김원모 김형순 남명자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박상준 박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박현주 방정복 신경훈 신현화 엄세종 엄정자 오일순 윤선희 윤영훈 윤화경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상철 이석재 이영미 장영진 전동훈 전정일 정동호 정혜영 조준제 최태훈 최희숙 최희태 한창주 한혜숙 황인종 황학수 영희가브라 **합계 : $4,565**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선제 김영길 김원모 김형순 남명자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박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박현주 방정복 신경훈 신현화 엄세종 엄정자 윤선희 윤영훈 윤화경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상철 이석재 이영미 전동훈 전정일 정동호 정혜영 조준제 최태훈 최희태 한창주 한혜숙 황인종 영희가브라 **합계 : $3,185**
미사헌금 : $3,123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상식**

지난 2월1일(수)부터 3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시작한 성경경연대회가 3월31일로 마감됐습니다.

- 제목 : 요한복음(영어)
- 시상 : 오늘 부활대축일(8일) 학생미사 중
- 수상자 : 7명, 다이애나 칼란타(4), 박세진(4), 제임스 장(4) 지스틴 장(6), 킴벌리 고(6), 브리아언 모(7), 엔서니 정(7), 정훈 김(8), 케빈 김(9)

◈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5월20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김정심 크리스티나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 **청년 견진성사**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Reflection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대상 : 10학년
- 신청마감 : 4월8일(주일)
- 등록비 : $30(점심제공)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 교사 ☎(424)903-6637

◈ **LA한국교육원 주최 한국학교 교사연수**

- 일시 : 4월10일~5월3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한국학교 한국어교사 및 교사 지원자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310)713-2669

남가주소식

◈ **성모기사회 4월 성모신심미사 일정 변경**

- 일시 : 4월14일(토) 오전 10시 묵주기도와 함께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문의 : 황광우 요셉 신부 ☎(310)380-4647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 **남가주 제25차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5월10일(목)~13일(주일) 3박4일,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정광호 도미니꼬 신부(보스턴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총무☎(213)435-7570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320-3697 4/20(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4(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53-9597 4/15(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70-8707 4/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4/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634-6923 4/12(목)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4/21(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4/2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4/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4/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다니엘 892-1213 4/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971-8866 4/10(화) 오전 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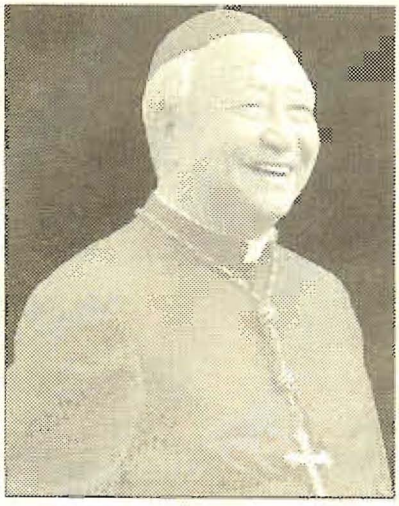
이번주 단체모임

부활대축일(재단체모임의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 11,2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스며든 싱그러운 봄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마태오16,21)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죽음의 허무함과 슬픔을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비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한 생활이며(에페 2,6),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1고린 12,12-27)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며, 보증이 됩니다.(1고린 15,20-22)
오늘날 세상은 과거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어두운 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져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최첨단 대중매체의 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인간의 삶은 과거에 비해 더 소외되고, 진실된 친교와 소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모든 생명의 공존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의 일치는 모두를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 종교, 정치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대화는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사목헌장 28항)
이제 곧 국민을 위한 봉사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행복에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투표를 할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은 신자들이 세상의 복음화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사목헌장 75항) 또한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나 거부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국민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생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 할 수 있습니다.(마르 16,11 참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는 죽음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2년 부활절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